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 우리를 위한 오늘 모두를 위한 내일 |

Newsletter

시민속으로 2017 / 8월 2주차

■ 연구원 주요일정

- 08월 08일(火) : 주간회의
- 08월 09일(水) : 학술회의 준비회의

■ 연구원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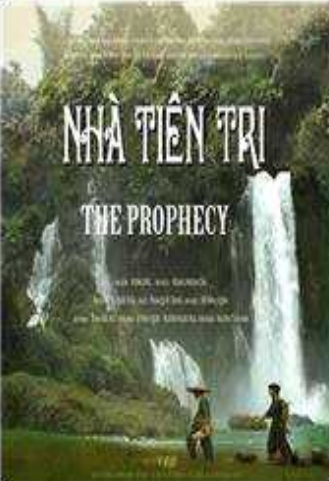
○ 국제 독립운동 영화제 및 광복절 학술대회 안내

- 날짜 : 2017년 08월 14일(월) ~ 08월 15일(화) / 장소 : 전주역사박물관 녹두관

8월 14일(월) "독립운동 영화제"	8월 15일(화) "광복절 학술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0~13:00 - 영화제 오프닝 - 영화해설영상 - 미얀마 영화 <나바> • 13:00~13:30 - 휴식 • 13:30~15:00 -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 15:00~15:20 - 휴식 • 15:20~17:10 - 영화해설영상 - 베트남 영화 <예언> • 17:10~18:00 - 베트남 감독 "부웅 덕"과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00~14:30 - 개회식/환영사/축사 • 14:30~16:30 - 전북지역 의병의 인적교류 - 습재 최재학을 중심으로(발표 : 김건우 / 토론 : 홍영기) - 전북지역 항일 유림의 인적교류 - 염재 조희제를 중심으로(발표 : 변주승 / 토론 : 이항배) • 16:30~16:40 - 휴식 • 16:40~18:40 - 전북지역 민족주의자의 인적교류 - 장현식을 중심으로(발표 : 윤상원 / 토론 : 유시현) - 전북지역 사회주의자의 인적교류 - 신간회와 김철수를 중심으로(발표 : 윤효정 / 토론 : 최규진)

※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은 연구원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 국제영화제 상영작>

순	구분	내용
1		<p style="text-align: center;">미얀마 영화 <나바> 1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作, 상영시간 120분 - 일제 치하 미얀마 농민들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영화 - 미얀마 농민들의 고통을 대표해서 일제에 맞선 나바. 나바의 활동을 통해 일제치하 미얀마 농민들이 실상을 잘 볼 수 있는 영화. 미얀마 최고의 배우 '쩌두'가 배우 겸 제작자로 참여. - 미얀마 현지에서 흥행 성공.
2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 영화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13: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作, 상영시간 82분 - 손양원 목사(1902 ~ 1950)의 일대기 - 1938년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한 이후 줄곧 여수의 나병환자 요양원인 애양원의 교회에서 봉사하였으며 신사참배의 강요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1940년 체포되어, 광복이 되어서야 출옥. 출옥 후 1946년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6.25 전쟁 중 사망
3		<p style="text-align: center;">베트남 영화 <The Prophecy> 15: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作, 상영시간 109분 - 1947 ~ 1950년까지 프랑스 군대를 상대로 한 베트남 독립 운동 영화 - 2017년 다카 국제영화제 초청작



S Y M P O S I U M


학 술 대 회

인적 교류를 통해 본 전북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사회관계망 구성

2017
8·15 화요일
14:00 시

장소
전주역사박물관 녹두관
문의
063·286·3005

주최·주관  성북회 전북지부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후 원  국가보훈처



일송
장현식



염재
소의재



شم재
شم재학



지운
김재석

全北地域獨立運動家

○ 전북도민일보 “전북의 항일운동가” 기획특집 연재

- 우리 연구원과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K-History사업단, 광복회 전북지부가 공동으로 진행중인 “전북의 항일운동가” 기획특집 여섯 번째 연재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아래는 기사 전문(자문 : 정재철 부안역사문화연구소 연구원)입니다.



▲ 독립운동가 지운 김철수 선생

대한민국 항일운동사를 보면 '김철수'라는 이름이 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13년8개월간 옥고를 치를 만큼 불굴의 독립투쟁을 했다. 하지만, 해방 후에는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공안당국으로부터 철저한 감시를 받아야 했다. 1920년대를 대표하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라는 이유에서였다. 그의 사후 20년 만인 2005년에야 조국은 그에게 '독립유공자'로 칭호를 서훈했다.

김철수에 대한 평가는 전통유학에 조예가 깊은 지식인으로서 독립운동을 위해 전통유학과 사회주의의 결합이라는 한국사회주의 사상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 한학자 서택환을 만나면서

지운(遲耘) 김철수(金鑣洙, 1893~1986)는 전북 부안군 백산면 원천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쌀 위탁 판매업을 하는 넉넉한 소지주였고 재주가 있는 아들의 교육에 열성적이었다. 당시 이평면 말목에는 구례군수를 지내다 부모 상(喪)을 당해 군수직을 사직한 서택환이 서당을 열고 있었다. 김철수는 그를 통해 한국의 선비정신을 배우고 민족의식에 눈을 뜨게 된다.

서택환은 한일병탄(한일합병과 같은 뜻이지만 병탄은 '남의 재물이나 다른 나라의 영토를 한데 아울러서 자기 것으로 만듦'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한일합병보다 더 일본의 침략적인 모습을 보여줌)되기 2,3년 전에 “우리나라가 다 망해간다. 너희들이 일어나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김철수는 화호보통학교와 군산 금호학교에서 신학문을 공부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와세다 대학 정치과 전문부에 입학했다. 1914년에는 친구 7명과 함께 사진을 찍고서 '곡귀단(哭鬼團)'이라는 기록을 남긴다. '조국해방을 위해 싸우다가 죽더라도 귀신이 되어 조국의 해방을 위해 울자'는 뜻이다.



1916년 11월 오하시정

▲ 1916년 일본 와세다대학 유학시절(앞줄 왼쪽에서 4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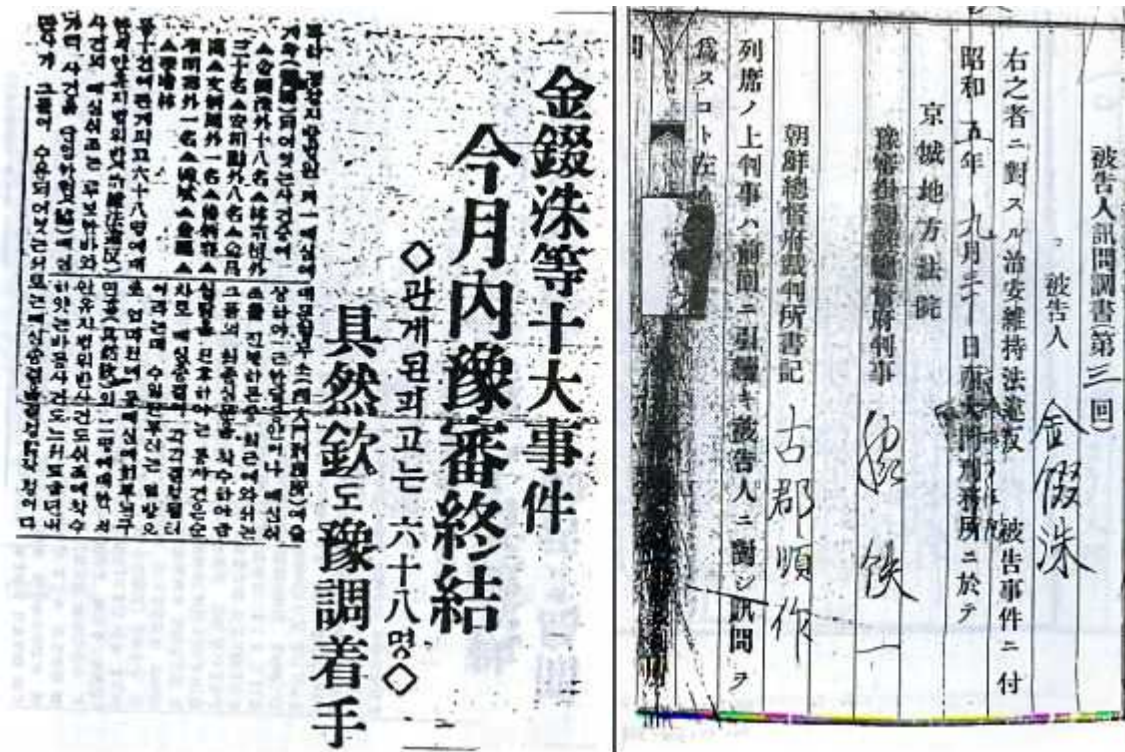


▲ 부안 백산고 입구에 조성된 지운 김철수 선생의 공적공원

#. 국내 사회주의 운동 주도

1915년에는 일본에 있는 친구들과 첫 비밀결사인 '열지동맹'을 결성해 장래 사방으로 흩어져서 독립운동을 할 것을 결의했다. 그 뒤 두 번째 비밀 결사 '신아동맹단'을 결성해 중국, 조선, 대만의 동지들과 일본에 대한 반제국주의 연대투쟁을 벌일 것을 선언했다. 민족 문제로 고민하던 김철수는 식민지 시대에 겪는 고통의 근원을 '일제의 강점(強占)' 때문이라고 인식해 민족의 독립에 온 힘을 바치기로 다짐했다.

귀국 후 1920년에는 최린의 집에 모여 최팔용, 이봉수, 주종건, 최혁, 장덕수 등과 함께 '사회혁명당'을 조직했다.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는 것이 선결문제이므로 민족주의자들과도 손을 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이 힘을 길러서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내 사회주의운동 사상 최초의 결사였다. 사회혁명당은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이동휘 세력인 한인사회당과 조직적으로 결합해 '고려공산당'을 1921년에 창립해 1923년초까지 국내 사회주의 운동을 주도했다. 이들을 소위 '상해파'라 부른다.



▲ 김철수 재판을 다룬 신문기사와 판결문

#. 조선공산당 책임자가 되다

김철수는 자신이 사회주의 사상을 갖게 된 것은 천성적으로 가난한 사람과 약자를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고, 특히 걸인이나 어려운 자들을 보면 도와주는 집안 고모의 영향을 받았다고 술회했다. 이러한 성향은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민족의 해방과 가난한 자들의 계급해방을 위한 행동으로 나타났다.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창립되자 국내에 들어온 김철수와 친구 이봉수는 조선공산당에 입당해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다.

6.10만세운동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면서 조선공산당이 와해되자 이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김철수가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로 취임했다. 일본 경찰이 김철수의 조선공산당을 '3차 공산당'이라고 보는 것은 경찰이 조선에서 공산당을 발본색원했다고 주장하며 붙인 이름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김철수를 3차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로 불리는 것 또한 잘못이다. 김철수가 복원한 공산당은 1925년 4월에 창립한 조선공산당 자체였다.

김철수가 모스크바로 파견되어 코민테른으로부터 당 승인을 받고 돌아왔지만, ML파(막스 레닌의 첫글자 이니셜을 딴 것으로 해방전 또는 광복전, 한국 공산당의 한 파벌)의 파당성과 전횡이 알려지면서 당을 해체하고 '조선공산당 재건설 준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다. 김철수의 이러한 활동은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조국을 해방시킬 수 있는 방략으로 공산당 활동을 한 것이다.

위험한 일을 맡아 운동의 전위에 서서 조선공산당의 재건과 독립운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김철수는 1930년에 검거되어 형을 선고받는다. 항소하자는 권유를 뿌리친 것은 '제국주의 일본의 법률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에서였다.

#. 진정한 해방을 위한 모색

해방 후에 공주감옥에서 출옥한 김철수는 '해방은 우리의 힘으로 되었다'고 주장하며 외세의 관여를 배격했다. 김철수는 "민족주의자들도 통일이 필요하고, 공산주의자들도 통일해야 되고, 또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이 서로 통일이 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독립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방정국의 정치 상황에 환멸을 느끼고 낭만적인 공산주의자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정치에 손을 떼고 1947년에 고향 백산면 원천리에 돌아와서는 오직 농사일에만 전념했다. 김철수는 이때부터 '자연인 김철수는 살고 정치인 김철수는 죽었다'고 생각했다.



▲ 1938년 공주감옥 출소 후 모습(앞줄 왼쪽에서 3번째)



▲ 김철수 의사가 살았던 토담집 이안실(易安室. 이 정도면 편하다는 의미)

#. 손수 지은 '이안실'은 외로운 터

백산면 대수리 야트막한 야산에 자리 잡은 10평 안팎의 초라한 외딴집은 김철수가 손수 지은 것이다. 이 집에 살면서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며 작은 고통이라도 나눈다는 자세로 자신의 토담집을 '이 정도면 편안하다'는 뜻으로 '이안실(易安室)'이라 불렀다.

김철수는 사회주의자였다는 이유 하나로 1급 감시대상으로 분류돼 공안당국의 감시를 받았다. 또 민족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북한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할, 남북 분단 현실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의 1주기에 세운 비석은 아무것도 쓰지 않은 '백비'다. 평가를 미룬 것은 남과 북이 통일이 돼야 비로소 그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2005년 광복 60주년에 김철수와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 등의 좌파 독립운동가들의 서훈은 우파 독립운동가의 활동만 배워온 우리들에게 비로소 반대쪽의 독립운동사도 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정읍 백산고 교문 입구에 조성된 지운 김철수 선생 공적공원 내 있는 백비(사회주의자란 사상적 문제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훗날 남북통일 후 공적을 재평가해 묘비 뒷면을 기록하기 위해 비워놓음)

#. 독립운동가 김철수 구국정신 복원

갈수록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면서 김철수의 이름도 '망각의 늪' 속에 갇히게 되었다. 본보는 일생을 독립을 위해 바친 김철수를 끌어내어 '기억의 역사'로 다듬고 알릴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다. 기획취재팀은 이생에서 춥고 초라하고 외롭게 살다 가신 '독립운동가 김철수'를 기억하는 것은 역사를 복원하는 길이고, 정의에 빛을 더하는 작은 출발이라는 각오로 그의 발자취를 뒤따랐다.



▲ 김철수 묘비 앞 부문

(2005년 독립운동가로 서훈돼 대전 현충원으로 안장되면서 묘비는 이곳으로 이전 설치됨)

○ “역사 공예를 만나다” 공예품 전시

- 날짜 : 2017년 07월 31일(월) ~ 08월 18일(금)
- 장소 : 전주시청 로비
- 내용 : 우리 연구원 양미영 회원(꽃숙이 공방 대표)께서 “역사 공예를 만나다 -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 의궤”를 주제로 공예품 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 개원 11주년 회원의 날 안내

- 날짜 : 2017년 09월 02일(토) ~ 03일(일)
- 장소 : 초남이 성지
- 내용 :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자세한 일정 및 세부사항은 확정 되는대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 “시연(時緣)” 원고 및 표지사진 모집 안내

- 2017년도 시연의 표지에 연구원 사무국에서 촬영한 사진이 아닌 회원의 손때가 묻은 사진을 사용하여 의미를 살리고자 합니다. 연구원 기관지 시연의 표지로 장식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사진이 있으시면 메일이든 우편이든 보내주십시오. 아울러 원고도 함께 모집(특정 주제없이 자유롭게 말하고 싶은 것으로)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정되신 회원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 “조센징에게 그러지마” 도서 출판 안내

: 우리 연구원 변주승 상임이사과 이정옥 평의원이 “조센징에게 그러지마” 라는 번역서를 출간하였습니다. 도서의 출판은 연구원 前 운영위원이셨던 한명수 흐름출판사 대표가 맡아주셨습니다. “조센징에게 그러지마”는 1933년 조선헌병대사령부가 발간한 내부 극비자료를 번역한 것입니다. 본 도서는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던 기존의 역사책이 주목하지 않았던 일반 민중들의 삶과 생활 전반에 걸친 차별과 폭력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 옛 시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명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자소개

- 설도(薛濤, 768-832). 중국 당(唐)의 시인으로 자(字)는 홍도(洪度)이다. 장안 사람으로 아버지 설운을 따라 성도에 머물렀다. 14세에 아버지가 죽고 가세가 기울어 16세에 기녀(妓女)가 되었는데, 후에 은퇴하여 완화계(浣花溪)에 거주하였고, 원진(元稹)·백거이(白居易)·유우석(劉禹錫) 등과 시를 교환하였다. 자신 스스로 만들었다고 하는 시전(詩箋), 설도전(薛濤箋)으로도 알려져 있다.

■ 작 품

池上雙鳥(지상쌍조)

연못가에 한 쌍의 새

雙棲綠池上(쌍서록지상)

푸른 연못가에 한 쌍의 새 깃들어

朝暮共飛還(조모공비환)

아침과 저녁으로 함께 나르다 돌아옵니다.

更憶將雛日(갱억장추일)

새끼들을 거느릴 날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同心蓮葉間(동심련엽간)

연 잎사귀 사이에서 마음을 함께 합니다.

■ 감 상

- 설도는 38살이 되는 805년까지, 위고의 비호 속에서 태평스럽고도 평안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위고와의 사랑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으니, 이때 설도는 크나큰 슬픔 속에서 위고를 위해 많은 애도시를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깝게도 오늘에 전해지는 것은 단 한 수가 없다.

위고가 물려주고 간 많은 재물을 써 악적에서 풀려난 설도는, 이때부터 성도의 서쪽 교외인 완화계(浣花溪) 벽계방(碧鷄坊)에 은거하였다. 두보가 살았던 초당 부근인데, 설도와 두보는 서로 만날 수가 없었다. 설도가 3~4살이었을 무렵에, 두보가 먼 타향에서 세상을 뜬 때문이었다.

위고의 후임으로 촉 땅에 온 유벽(劉闢)은 곧 반란으로 몰려 처형되었다. 다시 유벽의 뒤를 이어 절도사로 부임한 무원형(巫元衡)은 문학을 사랑했던 인물이다. 그는 설도의 명성을 익히 들은 바가 있어, 설도에게 언제나 관대하게 대하였다.

기생의 신분에서 이제 평범한 아낙으로 돌아갔지만, 설도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 그래도 그녀의 가슴 속에는 포근하고 단란한 가정을 향한 꿈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신화와 공존하고 있는 아테네>



<아테네 시내에 있는 제우스 신전과 하드리아누스 황제 개선문>

신화의 나라로 불리는 그리스는 그 명성대로 곳곳에서 신화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아테네 이름도 여신 아테네에서 유래되었다. 시내 어디서나 보이는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우뚝 서 있는 파르테논은 하얀 대리석으로 인해 눈이 부실 지경인데, 이 파르테논 신전도 역시 여신 아테네 신상을 모시려고 건립되었다. 이밖에도 이곳에는 승리의 여신 니케와 풍요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에서 내려다보면 '신들의 아버지'로 우주적 권능을 가졌다는 제우스 신전이 보인다. 원래는 104개의 고린토식 양식이었으나 지금은 기둥 15개만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보면 그 웅장함에 놀라게 된다.

이 제우스 신전 옆에는 로마의 황제 이름을 딴 하드리아누스 개선문(사진 좌측 하단의 아치형 문)이 서있다. 우리나라에서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멀지만 그리스는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다. 그것은 세계 역사를 배우면서 익혀왔고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아테네 시내를 빨리 하는 하루도 가능하지만, 그리스 신화를 떠올리며 산책하듯 돌아보려면 2-3일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오모니아 광장과 아크로폴리스 중간에 숙소를 잡고 고대 아고라를 거쳐 파르테논 신전으로 오른다. 파르테논 신전 언덕에서 신들의 신전에 심취한 후 시내를 바라보고 지형을 익힌다. 그리고 디오니소스 극장 쪽으로 내려 온 다음 제우스 신전을 거쳐서 신타그마 광장으로 간다. 이 광장 주변에는 국회의사당을 위시하여 여행사, 백화점, 음식골목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최근에는 경제 악화로 간간히 시위가 벌어지곤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아테네의 중심부이기에 체험해 볼 만한 곳임에는 틀림이 없다.

광장 주변의 레스토랑에서 케밥, 수블라키 등 지중해 음식으로 여유를 찾은 다음 리카비토스 언덕으로 올라가 시내 야경을 바라보는 것도 해봄직하다. 이곳에서는 파르테논 신전이 불빛 속에 자태를 드러내고 있으며, 멀리는 에게해도 보인다. 혹 더 여유가 있으면 오모니아 광장 인근에 있는 아테네국립고고학박물관을 들리는 것도 의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아테네를 한 바퀴 돌아본 셈이 된다.



<고대 아고라 근방에 있는 공예품 가게>

■ 나의 문화유산 연재기

* 최나래(한고연 회원 /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

대학 박물관에 근무하며 석사 논문을 쓰던 시절, 쓰고 있던 주제와 같은 주제의 논문이 다른 학교에서 먼저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어느 날 알게 되었다. 30년간 발표된 적이 없는 주제였기에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모르며 시간만 보내기를 며칠... 친하게 지내던 학교 선배가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해 영겁결에 하루 휴가를 내고 따라나섰다.

강원도 어디에 갈 거란 말만 듣고 동서울터미널로 향했는데, 선배가 끊은 버스표의 목적지는 횡성에 있는 풍수원성당이였다. 아직 바람이 찬 2월 말, 평일의 조용한 성당을 둘러보면 생각이 정리될 거라고 했다. 동서울터미널을 출발한 버스는 양평을 거쳐 풍수원성당 바로 앞 큰길에 우리를 1시간 30분만에 내려줬다. 풍수원성당은 행정구역상 횡성에 속하지만 양평에서 훨씬 가까웠다.

풍수원성당은 아빠 친구 아들이 조연으로 출연한 '러브레터'라는 드라마의 배경 장소였기 때문에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 곳인지는 잘 몰랐다. 강원도 최초의 성당인 풍수원성당은 전주의 전동성당, 아산의 공세리성당과 더불어 신자들에게는 성지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곳이다.



<풍수원성당 입구의 표석>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9호. 풍수원성당 본당>

성당 입구에 '1888년 풍수원성당 유적지'라고 새겨진 큰 표석이 세워져있는데, 이 해는 서울 교구장이 풍수원을 본당으로 승격시켜 초대 신부로 르메르(Le Merre)를 파견한 때이다. 처음 풍수원 성당은 초가집 형태였는데 지금의 고딕식 건물이 세워진 것은 1907년이였다.

풍수원성당은 특이하게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되어 있다. 바닥에 앉아 이런 저런 생각을 정리하며 한참을 앉아있다 돌아왔는데, 한 때는 의자가 놓여있었던 모양이다. 등록문화재 제163호로 지정된 뒤편의 구 사제관은 현재 전시관으로 꾸며져 있어 초기 풍수원성당 시절에 사용되었던 쫓대 등 의물과 라틴어 성경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풍수원성당 본당의 내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한다.>



<등록문화재 제163호 구 사제관. 지금은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십자가의 길을 걷으며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피해 산골인 이곳으로 모여 들어 직접 벽돌을 구워 본당을 완성한 신자들을 생각하니 내 문제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풍수원성당에 다녀온 뒤 정신차리고 주제를 바꿔 다시 논문을 쓰기 시작했고, 명동성당 예비신자교리반에 들어가 6개월의 교리교육을 받고 세례성사를 받게 되었다.

비록 지금 생각하면 웃어넘길 젊은 날의 방향이었지만 그 겨울 풍수원성당에서 받은 위안은 아직도 내 삶 속에 유효하게 남아 있다. 주제를 바꿔 졸업도 마쳤고 세례성사를 받은 명동성당은 또 다른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지금도 겨울이 되면 풍수원성당을 방문했던 때가 가끔 생각이 난다.